

# 순천 청년공동체, K-디즈니·원도심 활성화 나선다

올 3개 유형 53개팀 선정 최대 1500만원 지원...24일까지 모집  
11월까지 활동... ‘청년 살기좋은 순천 만들기’ 12월 성과 공유회

순천 ‘K-디즈니’ 실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공동체가 나선다.  
순천시는 오는 24일까지 ‘2024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도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순천시는 올해 3개 유형 53개 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은 ‘순천형 I (진입)’ 36개 팀, ‘순천형 II (프로젝트)’ 4개 팀, ‘전남형 (성장)’ 13개 팀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각각 팀별로 250만원, 1500만원,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K-디즈니 연계 관광 활성화 ▲원도심 활력화 ▲청년주도 행사·교육 지원 ▲취·창업 지원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순천에 살거나 활동하고 있는 18~45세로 구성된 5인 이상 청년 공동체이다. 팀에서 순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청년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비슷한 사업으로 중앙부처·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모임, 단체의 운영비(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 자산취득을 위한 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순천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기여도 등을 심사한다. 특히 올해에는 공동체별로 2인이 참

석해 현장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평가한 선호도 점수가 들어간다.  
활동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이다. 올해 12월에는 성과 공유회를 통해 공동체의 활동 경합을 공유하고 단계별 교류망을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공동체는 오는 24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활동 계획서, 예산 계획서 등을 갖춰 순천시 청년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dolphingod@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란이나 순천시 청년정책과(061-749-42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빈 곳을 함께 채우고 도시 전체가 생동감이 넘칠 수 있도록 청년의 눈으로 보고 청년의 마음으로 느끼면서 청년들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순천을 만들어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보성군 ‘으뜸마을 만들기’ 주민이 주도한다

12개 읍·면 담당자 실현 방안 논의  
올 138개 마을 경관 조성 등 추진

보성군은 최근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담당자 14명과 함께 회의를 열고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는 12개 읍면 총무팀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계획과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청정자원을 주민 스스로가 사업 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사업이다. 해마다 사업비 5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보성군은 올해 12개 읍면 138개(1년 차 48개

·2년 차 45개·3년 차 45개) 마을에 경관 조성, 나무식재, 경관등 설치, 시설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민 회의를 거쳐 사업 계획에 마을 특색을 반영해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한다.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 주도형 으뜸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마을 운영 상담과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마을 고유의 특색을 담아내는 사업을 발굴한다. 이들 사업은 마을 자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보성군 주민 주도형 마을 가꾸기 사업인 ‘우리 마을 우리가 가꾸는 보성 600사업’의 효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전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보성군은 지난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곡성군 13~17세 청소년에 ‘문화바우처’ 20만원 지원

### NH농협은행과 카드 발급 협약

곡성군은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를 누리도록 20만원을 지원한다.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하나이다.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곡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부터 18세 청소년과 지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해마다 2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이달 현재 청소년 문화바우처 카드 사용 가맹점은 서점, 문구점, 영화관, 학원, 아이미용실, 안경원, 교복점 등 총 74곳이다.  
곡성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 12일에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와 문화바우처 선불카드 발급과 관리 운영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우리 곡성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편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준 농협



이상철(왼쪽 네 번째) 곡성군수와 안종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장 등이 문화바우처 선불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은행 곡성군지부에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는 곡성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구례군, 산림조합과 ‘숲가꾸기’ 대행 협약



구례군(군수 김순호·가운데)과 구례군산림조합이 ‘숲가꾸기 사업 관리업무 대행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이 최근 구례군산림조합과 2024년 숲가꾸기 사업 관리업무 대행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조진호 구례군 산림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17억4600만원이 투입되는 800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구례군산림조합이 관리한다.  
구례군산림조합은 공개 모집을 통해 관리 대행을 맡게 됐다.  
산주 동의와 경영계획 수립, 설계·감리·시공·사업 발주와 시행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구례군은 사업 승인, 대행 기관의 감독·준공검사 등을 처리한다.  
산림사업 관리대행을 통해 사업 발주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전문성이 있는 산림조합과 분산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구례군 측은 내다보고 있다.  
또 사유림 경영의 핵심 주체로서 산림조합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주시 화정면 낭도 선착장  
16일 ‘짜목짜목 낭만 페스티벌’

여주시 화정면 낭도 선착장에서 오는 16일 ‘짜목짜목 낭만 낭도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행사는 여주시와 여주시관광협회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가 후원한다.  
문화부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행사를 연다.  
이날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3시에는 낭도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푸드쇼’를 선보인다. 오후 4시까지에는 낭도의 아름다운 돌레길을 탐방하는 ‘낭도 한복 퀘스트 투어’가 진행된다.  
참가자는 낭도 관련 상품도 받을 수 있다. 이후 낭도의 풍습을 담은 다양한 공연으로 꾸민 ‘낭도 카니발’로 막을 내린다.  
이 밖에도 낭도 주민 장터, 먹거리 장터, 비비각 시 가면 만들기 등이 펼쳐진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고흥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5월10일까지 우편·이메일  
최우수 150만원·우수 100만원

고흥군이 오는 5월10일까지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기존 공무원 대상의 규제 발굴 활동을 민간까지 확대해, 지역의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공모 분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저해 규제·청년·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규제·인허가 절차 간소화 ▲임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길러 규제 등으로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직사항’에 게시된 제안서를 작성해 군청 기획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7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1명)는 150만원, 우수(2명) 각 100만원, 장려(3명) 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수 제안은 전문가 의견을 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광양시 ‘야간 여권 발급’ 지난해 535건 이용

광양시가 매주 화요일 여는 ‘야간 여권 발급 창구’ 지난해 이용 건수가 535건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2014년부터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6시~8시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서 야간 여권 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여권 발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옛 여권(유효기간이 남았을 때), 수수료 등을 갖춰 방문하면 된다.  
18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여권 야간 발급은 지난 2022년 154건에서 지난해 535건으로 경증 뛰었다.

광양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자로 7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다문화가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권 신청 때 입증 서류를 지참하고 무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061-797-247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태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여권 야간 민원실과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여수시가 지난 12일 연 ‘여수산단 공장장·유관기관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여수시, 산단 사고예방 ‘공장장·기관장 회의’

### 우수업체·유공자 표창도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가운데 GS칼텍스(주) 등 4개사가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선정됐다.  
여수시는 지난 12일 ‘여수산단 공장장·유관기관장 회의’를 열어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유공자를 표창했다.  
최우수 업체에는 GS칼텍스(주)가 선정됐다. 우수업체에는 남해화학(주), 금호석유화학(주)여수고무공장, 롯데GS화학(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천NCC(주) 등 10개사의 안전담당자는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날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시민이 안심하는 여수산단 조성’을 위한 논의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산단 기업 주요 공장장, 유관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여수시와 여수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산단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산단 기업 공장장에게 더 내실 있는 안전·환경관리를 주문했다.  
여수시는 산단 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산단 통합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플랫폼 방폭 및 화재 안전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가중된 만큼 여수시도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발전과 산단 안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